

中 소비자, 韓 상품 부정평가 ↑... 구매경험 79%→43%

(2020년)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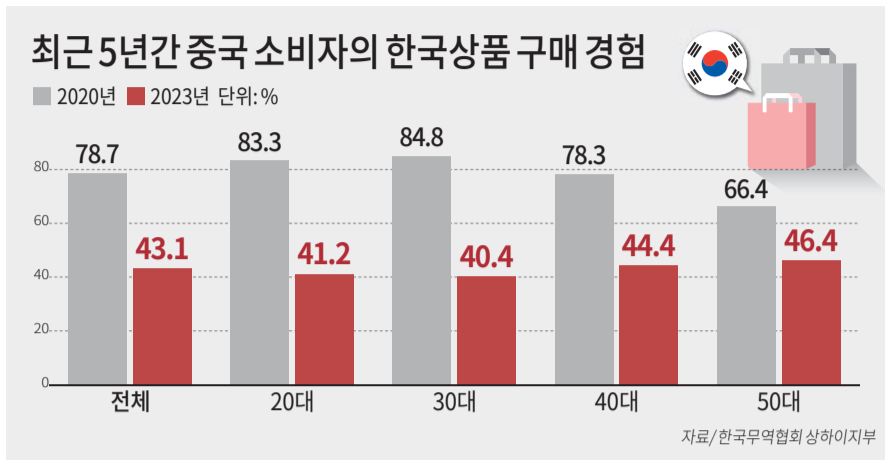
무협 코로나 이후 시장 분위기 급변 상품 후기·국가 이미지 등 영향 “韓 제품, 달라진 트렌드 부응 못 해 가격 이원화 등 맞춤형 전략 필요”

최근 5년간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 구매 경험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의 한국 상품에 대한 부정 평가가 3배 높아졌다. 중국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중국 주요 10대 도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상품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소비자는 54.5%, ‘보통’은 35.5%, ‘부정적’은 10%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초 조사때와 비교하면, 한국 상품 이미지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5%에서 5%포인트 감소



한 반면, 부정 평가는 3.4%에서 6.6% 포인트 증가했다. 부정 평가가 3년 사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내 한국 상품 구매 경험도 2020년 78.7%에서 올해 43.1%로 크게 줄었다. 연령별로 20대(83.3%→41.2%)와 30대(84.8%→40.4%) 젊은층이, 지역별로는 상하이(87%→41.3%), 베이징(87%→40.2%) 등 주요 대도시 거주 소비자의 구매경험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한국 상품은 ▲미용 제품

(58%) ▲식품(55.5%) ▲의류(45.2%)로, 주요 소비재 품목 순위는 2020년과 비교해 바뀌지 않았으나 해당 주력 제품 구매 경험은 각각 2.1%포인트, 9.0%포인트, 0.8%포인트 줄었다.

반면, ▲영유아용품(29.2%) ▲주방용품(19.3%) ▲의료건강 제품(14.4%) 구입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의료 및 건강제품 소비가 크게 증가했고, 코로나 봉쇄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된다.

중국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식품, 의료건강, 의류, 주방용품 구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봉쇄로 인한 외출 감소로 인해 응답자의 42.5%는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한다고 했다.

상품 구매시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는 품질(24.7%), 가성비(16.9%), 브랜드(16.2%) 순이었다. 특히, 20~40대 소비자는 브랜드를 중시하고, 50대 소비자는 가성비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 기간 중 중국 소비 트렌드는 변화했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품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상품 후기(35.9%)’, ‘국가 이미지(34.6%)’, ‘경쟁력 부족(33.6%)’ 순으로 응답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한국 제품의 경쟁력 부족’, ‘번거로운 A/S’, ‘불합리한 가격’이라는 답변이 크게 늘었다. 한국 상품 대신 중국 상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58.2%에 달했고, 한국 상품을 대체할 국가로는 유럽(17.3%), 미국

(14%), 일본(10.5%)이 꼽혔다.

무협은 중국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우리 기업의 주력 소비재군을 화장품, 식품 외에도 건강·의료·웰빙 제품과 유아용품, 주방용품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코로나로 양극화된 중국 소비자 공략을 위한 제품 브랜드, 가격 이원화 전략으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더우인 등 쇼트 클립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급증하는 만큼, 티몰·타오바오·징둥 등 3대 플랫폼에 집중된 온라인 채널 다각화와 적극적인 상품 구매 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선영 무협 상하이지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중국 시장에 준비된 기업과 상품을 우선 진출시켜 ‘코리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준비가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마케팅 플랜을 갖추게 한 후 중국 시장에 진출시키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경제정책, 물가안정 보다 경기진작 힘 써야”

현대경제연구원 불황 장기화 가능성 지적 주요 변수에 G2성장, 금리변화 꼽아

우리 경제 성장 속도가 급감하는 실속(失速) 국면에 들어가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고성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경기 진작’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내놓은 ‘한국 경제의 실속, 높아지는 경착륙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향후 수출 경기 회복과 내수 반등,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이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는 연착륙과 경착륙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부정적 기조를 지속할 경우 경착륙 이후 침체가 장기화되는 경로를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제 지표를 보면 수출의 경우 2월까지 5개월째 감소세다. 1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해 3개월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도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내수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1월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41만 1000명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다.

현대연은 이들 지표를 토대로 부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고, 정책 대응도 실기해 연중으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핵심 구매력의 원천인 고용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게 현대연의 경고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 침체가 더 장기화될 수 있어서다.

현대연은 향후 경기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G2 성장 속도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 여부, 시장 금리 변화에 따른 내수 반등 여부, 고용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여부 등을 꼽았다.

다만 주 실장은 “미국, 중국의 경제 상황에 의해 수출 경기 회복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라며 “최근 미중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수출 경기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중국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주 실장은 “현재 고금리에 따른 시장의 자금 검색이 실물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과거 정책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정책 금리 최종 수준이 결정되면 시장 금리가 먼저 하락하면서 유동성 검색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주 실장은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경제 정책의 무게 중심을 ‘물가 안정’보다 ‘성장 강화’에 뒤야 한다”며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경기 진작 기조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오이·양파 등 주요 채소가격 폭등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양파가 진열돼 있다. 오이·양파·대파·애호박 등 주요 채소도 매가 가격이 난방비 상승과 학교 개학에 맞물려 재차 폭등했다.

/뉴시스

실버게이트 쇼크에 비트코인 2.2만弗 횡보

업계, FTX 사태 재현 우려

암호화폐 전문은행인 실버게이트 캐피탈의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위기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FTX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실버게이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사의 사업 및 재무 상태에 대한 포괄적 개요를 담은 연례 보고서인 ‘10-K’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버게이트는 10-K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2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버게이트는 FTX 파산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10억 달러(약 1조 30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고객 예금은 140억 달러(약 18조원)나 감소했고, 지난 1월에도 43억 달러(약 5조 5986억원)를 대출받아 채무증권 52억 달러(약 6조 7704억원) 규모를 매각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다.

실버게이트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은 2만 2000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한때 2만 500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3000달러 하락한 수치다.

지난 2일에는 비트코인이 5% 급락하면서 추가하락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를 연속 2만 2000달러 선을 사수하고 있어 실버게이트 여파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버게이트 위기는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개인투자자들이 아닌 기관투자자들과 주로 거래해 왔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J. 오스틴 캠벨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영업 종료 후 발표를 기다리면(은행 계좌에) 돈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다행인 것은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이미 실버게이트와의 관계를 끊고 자금을 이동해 적어도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20~30대 근로자 절반 “시간-성과 비례하지 않아”

전경련 근로시간 인식 조사 응답자 57% “현행 제도 부적합”

20~30대 근로자 절반 정도가 근로시간과 업무성과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자율의 근로시간유연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임금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근로

시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0%가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4.9%는 근로시간과 업무성과가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특히 ‘영업직’(50.3%), ‘IT·SW 등 연구개발직’(48.2%) 등에서 이 같은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68.1%는 전 직원이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보다 업무량 또는 개인의 업무집중도에 따라 자유롭게 출

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선호유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3%가 ‘필요시 주 3~4일간 몰아서 일하고 주 1~2일 휴무’를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자동화, 기술 융복합 등으로 근로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 만큼 기존 근로시간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